

성경적 제직과 신앙생활

1. 제직의 신앙생활

1) 신앙과 생활의 조화

제직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제직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내적 신앙(믿음, 기도, 말씀 묵상)과 보이는 생활 신앙(가정, 일터, 사회에서 드러나는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마 7:18)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즉, 믿음은 생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인적 삶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그러므로 제직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먹고 마시는 일)부터, 선택과 결정, 관계와 말, 노동과 쉼에 이르기까지 전 존재가 예배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롬 12:1; 골 3:17, 23; 뱀전 4:11).

- 작은 습관과 선택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엡 5:10)
- 시간·재정·건강을 청지기적으로 관리하여 질서와 절제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고전 4:2)

2. 제직의 신앙생활: 가정

한국에는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여 사는 집(house)보다는 마음과 생활이 한데 어울리는 가정(home)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의 홈(home)이란 경건한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은 데서 시작된 말입니다. 페스탈로치는 "기독교의 특산물은 국가가 아니라 가정이다. 오늘 문명 세계에 있어서 홈(home)이라고 일컫는 것은 특히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1) 가정을 제단으로 삼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직들은 내 가정을 제단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장소가 만들어야 합니다. 제직들은 가정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을 생활화하는 장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직은 가정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신앙의 불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가 스펔전은 "사탄의 원수는 우리 제단의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러나 그림자 뒤에 감추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제단에 기름을 부어 더욱더 이 불길을 일으켜준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경의 나무를 더하고, 기도의 바람을 보태어, 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화평의 원천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제직은 온 가족이 제단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경건한 기풍을 만들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간단히 진행하되 가족들이 교대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며, 순서는 가정의 형편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삼자.

먼저 믿는 부모나 형제, 가족원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은 신앙교육입니다. 가족을 예수님을 닮는 삶과 인격으로 본이 되는 일은 먼저 믿은 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한 가족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믿는 가족이 함께, 혹은 목장의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음식에 관심이 있듯이 가족의 심령을 위해 바른 영양을 섭취시켜야 합니다. 제직은 가정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가정 생활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제직인 가족은 그 가정의 교역자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가정이 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는 자기 집을 전도하는 장소로 제공하여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행 16:14- 15). 가정은 교육과 전도의 두 가지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을 전도와 선교의 복음 장소로 제공 받는 것은 특별 축복입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행 16:40), 에베소에는 아굴라의 집(고전 16:16), 라오디게아에는 늑바의 집(골 4:15)이 복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제직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삼아 신앙의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될 때 제직은 올바른 제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3)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삼자.

예수님께서서는 화목의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진 장벽을 헐어 버리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제직은 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화평의 장소로 삼으려면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가족의 심령에 천국을 이룹시다!” 가족의 심령에 사탄의 걸림돌이 아니라 천국의 디딤돌이 되도록 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충만의 삶을 살도록 천국의 말, 천국의 행동, 천국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가족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자!” 가정의 화평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한 가족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은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3. 제직의 신앙생활: 일터

제직의 신앙 생활은 일터(직장, 비즈니스, 사회)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직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입니다. 제직은 이중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시민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시민 공동체인 사회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중심에는 사회성, 공공성이란 공통성이 있다. 만일 제직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무시할 때 맛 잃은 소금이요, 빛을 비출수 없는 등잔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의 생활 수단으로 일터의 생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직업의 귀천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과 일터를 통해 축복의 통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어야 한다.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직업은 그의 방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지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업이요, 직업은 그를 추진하기 위한 부업이며, 직업과 일터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

바울의 직업관을 보면, 1) 형제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라고 했으며 (살후 3:8). 2) 이웃을 도와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였으며(엡 4:28, 살후 3:12), 3)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딤후 6:6- 8)

2) 직업은 신앙 생활에 덕스러워야 한다.

제직이 무슨 직업이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고전 6:12) 신앙 생활에 교회와 신앙에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회에 해가 되는 직업이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이라면 아무리 수익성이 높다고 하여도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직업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직은 직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근면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종된 이들이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을 다하라"(엡 6:5)고 가르쳤으며,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큰일에도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정한 양식을 주는 신실하고 슬기있는 관리인이 누구겠느냐?"(눅 12:42) 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진실성이 있는 자의 직업이나 직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4)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으로 알아야 한다.

제직은 자기의 직업을 주님이 맡겨 주신 사업으로 알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다."(빌 1:21)는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을 위하거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요 복음 증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써 일할 수 있습니다.

제직들은 직업관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로 가져야 하며 직업을 선택하거나 경영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쓸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 6:33).

4. 제직의 신앙생활: 언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하고, 소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은 사람에게 유익한면도 있지만, 위험하고 두려운 면도 많습니다.(약 3:8, 시 57:4, 잠 21:23).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직은 물질과 시간으로 교회를 봉사하지만, 혀와 말로써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골 4:6)고 하였습니다.

1) 하지 않아야 할 말 다섯가지

첫째,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엡 4:25).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남의 협담/비방은 말하지 말라(엡 5:4). "두루 다니며 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것을 숨기느니라"(창 11:13) 하였으니 남의 허물을 덮어 주면서 고치도록 권면하는 것이 험담으로 폭로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세째, 형제에게 이간이 될 말은 하지 말라(잠 16:18). 제직은 모든 사람으로 화목해 할 책임이 있습니다.(막 9:50, 살전 5:13). 화목의 사명이 있는 제직의 이간하는 행위는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잠 6:19)고 하셨습니다.

네째,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시 12:3). 언어 생활에서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지나친 자기 자랑입니다. "자랑은 악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꿇으시리라"(시 12:3) 하였습니다.

아무리 충성을 다하는 제직이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입술로 그 공을 소멸해 버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빌 3:3).

다섯째, 불평이나 원망이나 말을 하지 말라(시 37:1)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시 37:1).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이해심이 없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 5:4)고 하였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이나 원망은 해소됩니다.

2) 해야 할 말 다섯가지

말조심이란 무조건 함구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 말은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니라."(잠 25:11)

첫째,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마 5:37). 형제가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할 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하지만 진실성도 있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고 지혜자는 말하였습니다.

둘째, 참된 것을 말하라(엡 4:25). 우리 사회에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불신 사회의 불신 풍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간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혜가 됨이니라"(엡 4:25)고 바울은 주장하였습니다.

세째, 덕을 세우는 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엡 4:29). 제직은 누구인가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늘 소용있는 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의 선(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째,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살전 4:18). 제직은 독한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되고, 넘어져 가는 자를 위로와 격려의 말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나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뿐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형제, 자매에게도 합당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살전 5:13). 비평이나 책망은 형제에 낙심시키고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형제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하여 선한 일을 의욕을 일으켜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형제가 칭찬듣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발맞추어 칭찬과 격려로 힘을 돋구어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살전 5:13).

(3) 제직 신앙생활: 돈

제직이 금전 관계가 분명치 않으므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직들 사이에 금전 거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시비가 일어나 분쟁의 불씨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은 제직들을 넘어뜨리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분열케 합니다.

1)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이원론적 사고로 영적인 높은 세계와 물질적인 낮은 세계가 있어서 물질은 악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것은 선하다는 영지주의(Gnosticism)가 있다. 둘째로는, 유물주의로 물질과 마음 존재와 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 및 존재가 마음, 영보다 중요하다는 사상으로 물질을 생의 중심으로 삼아 재물을 제일로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재물을 무슨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재물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쓰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질 생활도 신앙 생활의 일부임을 확신하고 경건하게 맡아서 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딤후 6:10) "돈을 위하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금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달란트의 비유처럼 나의 물질 재능,

축복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돈은 옳게 벌어야 하며,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2) 교회에서 금전관계나 물질에 대한 서로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금전 거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서로의 신의, 우정도 무너지고 신앙 생활도 잘못됩니다.

*** 오늘 배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질문**

1) 오늘 배운 제직의 제직의 신앙생활 중에 새롭게 배우거나 마음에 남는 것을 써 봅니다.

2) 제직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했던 혹은 들었던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이 있다면 나누어 봅니다.